

## いま、大学で

沖 裕子

(信州大学人文学部・教授)

アンニョン、さようなら、と言ったきりなかなか動こうとしない学生たちとともに、私もまた出国ゲートに向かうのをためらっていた。昨年十一月三日、まだ真新しい韓国インチョン国際空港でのひとこまである。



人文学部に着任して以来、台湾からの大学院生を何人か受け入れ、九八年には初めて韓国からの学部生を迎え入れた。留学生の母語母文化の理解のためには、その国を直接訪問してみることも大切である。どうせなら恒例のゼミ旅行もかねて韓国を訪ねるのはどうだろうか、拙速に思い立ったのがすべての始まりであった。

旧知の社会言語学者、姜錫祐（カン・ソクウ）氏が、博士号を取得したあと母国へ戻って教壇に立っていることも思い出した。さっそく連絡をとってみると、大歓迎とのこと。その言葉にたがわず、当時のキンポ国際空港到着ロビーでは、百五十年の歴史をもつ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が「信州大学・いらっしゃいませ」の旗を掲げ、われわれ日本語教育学専攻の一行十二名を温かい笑顔で迎えてくれたのであった。



その時の旅程をたどってみると、期間は二千年三月六日から九日の四日間。信大人文参加学生は学部二年から大学院生まで。ほぼ同数のカトリック大生とともに、四日間を過ごしている。一緒にバスに乗って独立祈念館を見学し、日韓の歴史について双方真剣に学び、語り合っていた。

演劇に関係していた学生さんが美しい韓服をたくさん用意してくれており、また、こちらも和服を持参した学生がいて、着る方も着せる方も生き生きと楽しそうであった。こうした、まさに顔の見えるふれあいを通して学生たちは一気に打ち解け、当時は数少なかった日本語のカラオケ喫茶に行き、学生だけで東大門市場へ繰り出したりして、眠らない街を楽しんだようである。

日本語学科の日本語の授業見学と、新しい教授法による授業助手をさせていただいた体験も得がたく、専門領域の勉学の面でも大いに意欲をかきたてられたようであった。



こうした経験から約一年後の昨秋、私はふたたび、学生とともに韓国カトリック大学のキャンパスにいた。

期間は六泊七日と長くなり、盛りだくさんのメニューであった。行事を通して日韓双方の学生が対等にお互いの言語と文化を尊重し学びあえることを願って、姜氏と私はメールで、時には電話で事前に話し合いを重ねていた。

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による三回の韓国語講座と、ペアを組んでのホームステイ。日本語スピーチ大会の審査員。日本語授業の教壇実習等々。この間私どものために、カトリック大学国際交流所員の皆様には、温かいご配慮をいただいた。

広い大学内にあるセミナーハウスで両大学の学生が合宿をし、オンドルと障子の部屋を楽しみ、朝のキャンパスの清澄な空気と紅葉を愛でながら瀟洒な大学食堂でおいしい朝食を味わった。寝食をともにするには、相手の言うことに耳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すらすらとはいかない日本語で話す相手に対し、何とか意図をくみとり、また、こちらの言いたいことを平明な日本語で表現する訓練を通して、学生たちは、言葉の大切さと、心の交流の大切さの、両方を学んでいたように思う。



昨秋の訪問で何よりも嬉しかったことは、これを機に多くの方々のご尽力で、信州大学とカトリック大学との間に大学間国際学術交流協定が締結されたことである。両大学は規模や状況に類似点も多い。双方、学生数は約八千名。教職員数約千名。信大は四キャンパス、カトリック大は三キャンパスに分かれた総合大学で、ともに医学部が特色ある活動をしている点も似ている。

ちなみに、すでに人文学部主導で締結された交流協定は、英国、ドイツ、ベルギー、韓国を含む五大学にのぼる。大学がドメスティックに閉じた研究・教育体制を敷く時代は過去のものになりつつあるように思う。若い時代に言語も文化も異質な人々と相互に交流し、お互いに敬意を払いながら深く良質な対話をするようになるには、実際に共同の営みを通してふれあう機会が重要である。そうした国際的なふれあいは、それを通して自分自身の言語と文化についても深く知る必要に気づかせてくれる機会ともなっているように思う。



同窓会には、こうした活動に対して日頃からあたたかいご支援をいただき、感謝しております。最近の私の教育研究と国際交流の一端をここにご報告し、お礼の気持ちにか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付記：『人文学部同窓会報』第38号（2002年11月）から許可をえて転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なお、ここにあるのは本誌で扱っている交流の前年の様子です。

## 지금, 대학에서

冲 裕子

(신슈대학 인문학부·교수)

안녕, 잘 가, 라고 말한 채로 좀처럼 움직이려하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나 역시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작년 11월 3일, 아직도 새롭기만 한 한국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한 장면이다.



인문학부에 부임한 이후, 대만출신의 학생을 몇 명인가 대학원생으로 받아들이고, 98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출신학생을 학부생으로 받아들였다. 유학생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왕이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여행도 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떠할지 하고 대충 계획한 것이 모든 것의 시초였다.

전부터 알던 사회언어학자인 姜錫祐(강석우)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생각났다. 부랴부랴 연락을 취해보니, 대환영한다는 것. 그 대답에 어긋나지 않게, 당시의 김포국제공항도착로비에서는, 150년의 역사를 갖은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이 「신슈대학·어서 오십시오」라고 쓴 깃발을 들고, 우리일본어교육학전공일행12명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다.



그 때의 여행일정을 더듬어 보면, 기간은 2000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의 4일간. 신슈대학 인문학부에서 참가한 학생은 학부2학년에서 대학원생까지. 거의 같은 숫자의 가톨릭대학교 학생과 함께, 4일간을 보냈다. 함께 버스를 타고 독립기념관을 견학하고 일한 역사에 대해 서로가 진지한 태도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배웠었다.

연극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학생이 고운 한복을 많이 준비해 주었으며, 또 우리 쪽에서도 기모노를 준비해 간 학생이 있어서, 입는 쪽이나 입히는 쪽 모두가 생글생글 즐거워했던 것 같다. 바로 이런, 얼굴이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숨에 마음을 터놓으며, 당시에는 드물었던 일본어노래방에 가고 하고, 학생들끼리 동대문시장으로 몰려 나가기도 하며 잠들지 않는 거리를 만끽한 것 같다.

일본어학과와 일본어수업견학과, 새로운 교수법에 의한 수업보조자역할을 한 경험도 귀중하며, 전공영역의 공부에 있어서도 크게 의욕이 북돋워진 것 같았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약 일년 뒤인 작년 가을, 나는 다시 학생들과 함께 한국가톨릭대학교의 캠퍼스에 있었다.

기간은 6박7일로 길어졌으며 짝 짜여진 일정이었다. 행사를 통해서 일한양쪽의 학생이 대등하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래, 강교수님과 나는 메일로, 때로는 전화로 미리 의견교환을 거듭했다.

가톨릭대학학생에 의한 세 번째 한국어강좌와, 짝을 지어 이루어진 홈스테이. 일본어 스피치대회의 심사위원. 일본어수업의 교단실습 등등.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가톨릭 대학 국제교류과의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배려해주었다.

넓은 대학구내에 있는 세미나하우스에서 양쪽 대학의 학생이 합숙을 하며, 온돌과 장지문의 정취도 느껴보며, 때론 이른 아침 캠퍼스의 청정한 공기와 색색으로 물든 단풍도 음미하면서 산뜻한 대학식당에서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침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창하지 않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상대에게서 어떻게든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알아듣기 쉬운 일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은 언어의 소중함과 심적인 교류의 소중함 둘 다를 배웠지 않았나 생각된다.



작년 가을에 방문했을 때 무엇보다도 기뻐던 것은, 이런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신슈대학과 가톨릭대학사이에 대학간 국제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양 대학은 규모와 상황에서 비슷한 점도 많다. 양쪽의 학생 수는 약8천명. 교직원수는 대략 천명. 신슈대학은 4개의 캠퍼스, 가톨릭대학은 3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진 종합대학으로, 양쪽 다 의학부가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아울러, 이미 인문학부 주도로 체결된 교류협정은, 영국, 독일, 벨기에, 한국을 포함해 5개 대학에 이른다. 대학이 국내에 한정된 연구·교육체제를 펴는 시대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 가는 추세처럼 여겨진다. 젊을 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며,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며 깊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동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러한 국제적인 만남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알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한다.



동창회로부터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늘 따뜻한 후원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교육연구와 국제교류의 일부분을 여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부기: 『인문학부 동창회보』 제38호(2002년 11월)로부터 허가를 받아 옮겨실었습니다. 글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은 본지에서 다루고 있는 전년도교류의 내용입니다.